

#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해외 진출 전략

정 부 연\*

## 1. 개요

최근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수 시장의 한계로 인해 고성장이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SW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이 공공 SW 시장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5월 23일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법 적용시점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삼성SDS, LG CNS, SK C&C 등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다양한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해외 진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본 후 향후 IT서비스 시장의 해외 진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112, byjung@kisdi.re.kr

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 현황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3년 4월(누계)에는 전년대비 28.2% 성장한 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 초 IT서비스의 수출 성장률은 과거 5년간(2008~2013년) IT서비스 업체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인 1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 1〉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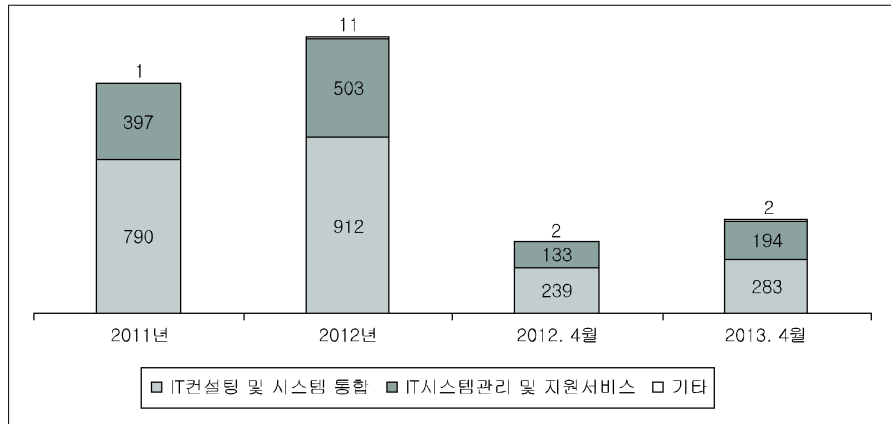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12 CAGR	'13. 4월	'13. 4월 증가율
IT서비스	788	863	1,035	1,188	1,426	16.0%	480	28.2%
SW 산업 전체	922	1,024	1,338	1,518	2,241	24.9%	952	103.0%

자료: 정보통신통계 연보 및 월보(KEA)

부문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IT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시장에 비해 IT시스템관리 및 지원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IT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시장은 2012년 전년대비 15.3% 증가한 9.1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3년 4월(누계)에는 전년대비 18.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IT시스템관리 및 지원 서비스는 2012년 전년대비 26.9% 증가한 5.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3년 4월(누계)에는 전년대비 45.6%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림 1] 부문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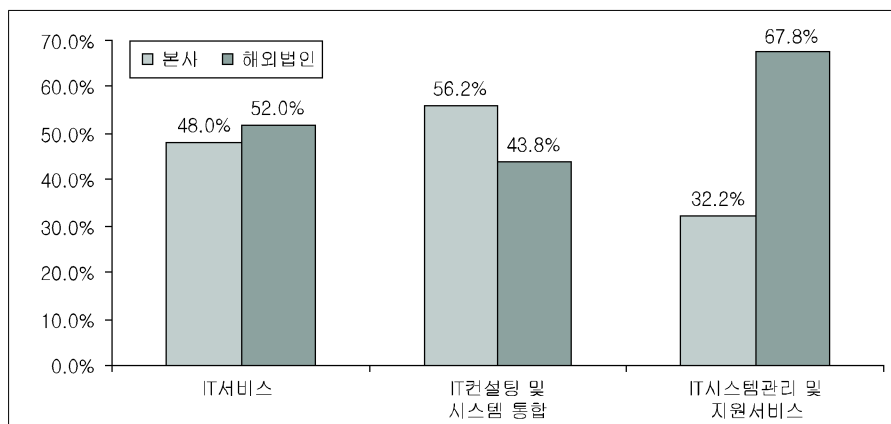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자료: 정보통신통계 연보 및 월보(KEA)

본사 및 해외 법인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이 해외 법인 설립을 확대하면서 국내 본사 수출보다 해외 법인 수출 비중이 52%로 더 높다. 이와 같이 해외 법인 수출 비중이 높은 원인은 신규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증가보다는 대기업의 지사의 IT시스템관리 및 지원 서비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 본사 및 해외법인별 수출비중(2012. 12월말 기준)



자료: 정보통신통계 연보 및 월보(KEA)

### 3. IT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전략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다수의 IT서비스 벤더가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주요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세계 IT서비스 시장내 점유율 순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세계 IT서비스 벤더 순위는 IBM, HP, Accenture, Fujitsu 등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IT서비스 벤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사의 경쟁력 있는 다수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컨설팅 인력을 보유해 컨설팅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 2012년 기준 전세계 IT서비스 벤더 100위권 내에 국내 업체는 3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삼성SDS는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33위, LG CNC는 전년대비 1계단 상승한 48위, SK C&C는 전년대비 11계단 상승한 74위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한 원인은 최대 70%가 넘는 계열사 관련 매출로 안정적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업체들은 선진업체에 비해 솔루션 보유 및 우수한 컨설팅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표 2〉 전세계 IT서비스 벤더별 점유율 순위

(단위: 백만달러)

Vendor	2011년 매출	2012년 매출	2011년 점유율	2012년 점유율	2012년 순위	전년대비 순위 변화
IBM	60,033	58,674	6.8%	6.5%	1	-
HP	35,702	34,922	4.0%	3.9%	2	-
Accenture	25,394	26,845	2.9%	3.0%	3	-
Fujitsu	23,506	23,810	2.6%	2.6%	4	-
CSC(Comp.Sci.Corp.)	16,209	15,689	1.8%	1.7%	5	-
삼성 SDS	4,304	5,344	0.5%	0.6%	33	▲ 3
LG CNS	2,881	2,883	0.3%	0.3%	48	▲ 1
SK C&C	1,537	1,991	0.2%	0.2%	74	▲ 11

자료: Gartner(2013. 3)

국내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매출 비중은 선진 업체에 비해 매우 낮다. 글로벌 IT서비스 선두업체인 IBM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의 규모가 약 60%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업체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12년 본사매출 기준으로 삼성SDS 9.8%, LG CNS 9.9%, SK C&C 3.1%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연결기준 매출로는 좀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 매출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한 해외 매출 비중은 더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낮은 해외 매출 비중에서 탈피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IT서비스업체들은 다양한 해외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삼성SDS는 민-관 협력으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지하철 자동요금징수(AFC) 등 전자정부 및 공공 SOC사업에서 최근에는 물류IT서비스, 건설 IT인 디지털 스페이스 컨버전스(DSC),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등 융합 사업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공 및 금융부문 사업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조직을 개편했다. 개편된 조직 중 핵심 내용은 해외 사업을 중점 담당할 'SMT(Smart Manufacturing & Town) 사업부'와 통합적인 아웃소싱 조직인 'ICTO(ICT Outsourcing)' 사업부를 신설했다. SMT 사업부는 중국, 중동 등 해외 수출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ICTO 사업부 기존 고객들의 IT서비스 유지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삼성SDS는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G CNS는 국가재정시스템, 긴급구조망, 범죄정보센터 등의 공공정보화와 대중교통 요금자동징수(AFC) 등의 공공 SOC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스마트 그린 솔루션(Smart Green Solution), 공장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의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SGT사업본부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안 경영체계 국제규격인 ISO 27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SAS,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LG

CNS는 2010년에 발표된 ‘비전 2020’의 목표아래 2020년까지 해외 매출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K C&C는 우편물류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전자정부, 금융시스템, 통신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신성장 사업인 m-커머스의 해외 서비스 범위와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SK C&C는 2013~2015년까지 수행될 4Th To-Be 프로젝트의 목표인 ‘국내를 넘어, IT서비스를 넘어(Beyond Domestic, Beyond IT Service)’라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기존 산업과 IT서비스가 융합된 다양한 해외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4. 결 어

개정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국내 IT서비스업체들은 제한된 국내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IT서비스업체들은 자사의 높은 계열사 매출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고, 산업 특화 솔루션을 제외하면 솔루션 경쟁력 및 우수 컨설팅 인력이 매우 부족해 해외 매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IT서비스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솔루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솔루션 개발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으나 경쟁력있는 중소벤처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2008년 이후 국내 SW 산업의 해외 진출 정책은 상생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수출 멘토링 사업, 대기업이 종합상사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 SW기업의 수출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결합된 선단식 진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 성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보다는 MS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외 SW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수출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벤처 SW기업에 대한 국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솔루션이 글로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외 진출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컨설팅 및 정보화 계획 수립(ISP)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시 현지 파트너 등을 통해 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솔루션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현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컨설팅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IT서비스업체와 현지 정부기관 또는 경험이 많은 글로벌 선진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 컨설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상생협력을 통한 우수 솔루션 확보와 글로벌 컨설팅 인재를 양성한다면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해외 진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0. 2. 4), “SW 강국 도약 전략: Software Korea Quantum Jump Strategy”.
- \_\_\_\_\_ (2011. 10. 27),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 자료”. (<http://dart.fss.or.kr/>).
- 정부연 (2012), “국내 SW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전략 산업과 해외 진출 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3호 통권 535호.
- 지식경제부 (2008. 10. 30),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 산업 발전방안”.
- \_\_\_\_\_ (2011. 2. 21), “2011년도 SW산업 육성 대책”.
- \_\_\_\_\_ (2012. 5. 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1436호(일부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http://law.go.kr)).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2012 SW산업연간보고서』.  
《아이뉴스24》(2013. 2. 27), “IT서비스, 해외 사업도 DNA 바꾼다”.  
《아주경제》(2013. 7. 13), “삼성SDS·LG CNS·SK C&C, IT서비스 ‘빅3’ 해외진출 ‘공격앞으로’”.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 정보통신통계 연보 및 월보.  
《파이낸셜뉴스》(2013. 6. 14), “삼성SDS, 해외사업에 올인 국내는 단계적 철수”.  
Gartner (2013. 3). “Market Share: IT Services”.  
IBM. “2012 Annual Report”.